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인플레이션 둔화 불구, 가솔린과 식품가격 우려된다
- CNN Business: 연준 내부 이견 불구, 9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

[금융]

- WSJ: 수익률 역전 현상이 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 Bloomberg: 바이든,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하 주도...여론은 무관심

[IT]

- WSJ: 연봉 90만불까지의 AI 일자리들이 있다
- Bloomberg: 미국 전기차 전환의 4가지 큰 장애물

[글로벌 경제]

- WSJ: 중국 경제 악화, 미국 기업에 타격
- WSJ: 막대한 보조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자유 무역 뒤엎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코로나가 레스토랑 업계를 바꾼 3가지 변화
- Bloomberg: Nvidia, 빠른 칩 공개... AI 지배력 강화
- CNBC: 여행객들의 일등석 선호도↑
- CNBC: U.S. Steel, Cleveland-Cliffs 73억 불 인수 제안 거절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After Pulling Inflation Down, Gasoline and Food Threaten to Nudge It Up

인플레이션 둔화 불구, 가솔린과 식품가격 우려된다

- 7월에 인플레이션이 둔화하지만 에너지와 식품 가격 인상에 따라 향후 수개월간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은 말하고 있다.
- 연방노동부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6월과 같은 0.2% 상승했다고 지난주 목요일 밝혔다. 이는 2022년 6월의 1.2% 상승과 2022년 평균 0.5% 상승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 그러나 이같은 인플레이션 둔화 세력이 반전되고 있다.
- 러시아 침공 이후에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올라 1년전에 9.1%로 크게 올랐다. 그런데 휘발유 가격은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금요일 일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0센트 오른 3달러 84센트를 기록했다.

- 식료품 가격은 지난해 9월까지 월 평균 1% 올랐지만 올해 3월부터 6월까지의 평균 0.1% 하락했다. 그러다 7월에는 0.3% 상승했다.

WSJ 기사

CNN Business: Fed officials are divided, but holding rates steady in September seems likely 연준 내부 이견 불구, 9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

- 연준 관리들은 다음달에 만난다. 경기 냉각을 위해 12번에 금리를 올릴지 그대로 둘지 결정한다. 일부 관리들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다른 관리들은 중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견이 나누어진 상황이다.
- 그러나 CME FedWatch에 따르면 다음달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은 90% 이상이라는 것.
- 한편 이달말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의 연례 경제 심포지엄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결정에 대한 힌트를 시사할 것으로 보인다.

CNN Business 기사

[금융]

WSJ: What Wall Street's Top Recession Gauge Is Saying Now 수익률 역전 현상이 말하는 것은

- 현재 투자자들은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익률 역전 곡선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
- 일반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면 경제가 불황에 진입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하 직전에 있기 때문에 단기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직전에 곡선이 반전된다.
- 최근 채권 시장은 장기 수익률은 급격히 상승했지만 단기 수익률은 소폭 상승에 그치는 '베어 스틱프닝'을 경험했다.
- 앞으로 분석가들은 비정상적으로 큰 수익률 격차와 경제의 강세를 고려해 볼때 수익률 곡선이 정상보다 더 오래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그러나 역전 현상은 결국 끝날 것이며, 주요 원인이 금리 하락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견딜 수 있다는 새로운 베틱인지에 따라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있다.

WSJ 기사

[인플레 감축법]

Bloomberg: Biden, Yellen Lead Blitz to Celebrate Inflation Reduction Act
바이든, 옐런 장관은 인플레 감축법 축하 행사 주최... 여론은 무관심

-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 감축법 1주년 기념 행사를 주최할 예정이다. 이 법의 통과를 재선에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인플레 감축법의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등을 강조하기 위해 시애틀을 방문할 예정이다.
- 그런데 이달초 워싱턴포스트와 매릴랜드 대학의 여론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 10명중에 7명은 이 법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분의 1만이 전기차 세금 공제, 태양열 패널, 풍력 터빈 등의 조항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Bloomberg 기사

[IT]

WSJ: The \$900,000 AI Job Is Here
연봉 90만불까지의 AI 일자리들이 있다

- 미국 기업들의 AI 채용 열풍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최고 인재를 찾기 위해 백만불에 가까운 연봉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
- 엔터테인먼트 및 제조 회사들은 데이터 과학자, 머신 러닝 등의 실무자를 영입하고 있다.
- Match Group의 계열사인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 Hinge는 연간 33만 2천 달러에서 39만천 달러의 기본급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부사장 직책을 광고하고 있다. 프리랜서 및 기타 전문가를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Upwork의 AI 및 머신러닝 부사장 직책은 연봉 26만 달러에서 43만 7천달러의 급여 제공 광고를 하고 있다. 또한 Amazon의 응용 과학 및 생성 AI 수석 관리자의 최고 연봉은 34만 3천300달러다.

WSJ 기사

Bloomberg: The Four Biggest Hurdles in America's EV Transition
미국 전기차 전환의 4가지 큰 장애물

- 요지: 인플레 감축법을 통한 투자 자금만으로 노동 부족, 정치, 민간 투자, 공공 수요로 인한 리스크를 극복하기 충분치 않다.
- 우선 전미자동차노조는 배터리 생산 업체들에게 수십억불의 납세자 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일반 자동차 조립 공장 근로자보다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정치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일자리를 증식시킬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 전기차 재고가 급증하고 있고, 전기차 업체들은 인플레이 감축법에 따른 세액 공제를 사용하여 경쟁을 강화하고 있어 수익성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전기 배터리와 관련된 니켈, 리튬 가공 공장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WSJ: China's Worsening Economy Is Hurting Corporate America 중국 경제 악화, 미국 기업에 타격

- 중국의 경기 침체가 악화되면서 미국 대기업이 타격 받고 있다.
- 중국에서 제조업, 건설업, 수출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매출 약화를 보고했다. 일부에서는 성장이 멈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주문 건수가 1분기 20%, 2분기에 40% 감소했지만 6월에는 50%나 감소했다”며 “하반기에도 상황이 나아질 거 같디 않다”고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Danaher의 CEO Rainer Blair가 말했다.
- 일부 경영진들은 중국의 수요 감소로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주문이 감소하고 매출이 줄어드는 등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WSJ 기사

WSJ: The Economic Losers in the New World Order 막대한 보조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자유 무역 뒤엎다

- 세계 최대 경제 대국들은 막대한 보조금 제공으로 미래 산업을 선점하고 있다. 이에 뒤처지는 건 보조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들이다.
- 배터리, 태양광 발전 장비, 기타 친환경 기술 제조에 대한 새로운 세금 공제 혜택 덕분에 미국으로 자본이 몰리고 있다. 유럽 연합은 자체적인 친환경 에너지 지원으로 대응에 힘쓰고 있다.
- 일본은 녹색 기술에 약 1천 5백억 불의 투자금을 발표했다. 이들 모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 중국은 배터리와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광물 등에서 큰 우위를 점하고 있다.
- 이제 작은 국가들은 뒤처지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수십 년간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했지만, 새로운 공격적 산업 정책의 시대에는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 영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제 대국들과 경쟁하기에는 규모가 작다. 또한 천연자원을 활용해 경제 성장을 기대했던 인

도네시아와 같은 신흥 시장도 이러한 변화로 위협 받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 Business: Three ways Covid changed the restaurant industry 코로나가 레스토랑 업계를 바꾼 3가지 변화

- 1. 축소되거나 배달로만 운영하는 식당: “팬데믹 이후에는 배달로만 식당을 운영한다”고 미국 TV 프로그램 The Whole Story에 나온 최 셰프가 말했다.
- 그녀는 이러한 결정이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고객이 집에서 다시 가열해 먹을 수 있는 식사와 밀키트, 김치 등을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 계속 진행되는 배달: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레스토랑이 문을 닫을 때, 그들은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고객들은 배달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었다.
-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제공하지 않던 레스토랑도 배달 옵션을 제공하면서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는 많은 비용이 들어 수익성을 악화 시켰다. 그래서 일부 레스토랑 운영자는 더 나은 요금을 제공하는 소규모 업체와 제휴를 맺었다.
- 3. 일자리↑ 근로자↓: 팬데믹 초기에 많은 레스토랑 직원들이 해고 되었다. 팬데믹이 일어난 지 3년이 넘는 지금, 일부 레스토랑 일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
- 전미 레스토랑 협회는 7월 일자리 보고서에 이어 8월에 “레스토랑 인력 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7월 현재, 외식 업소 일자리는 2020년 2월 고용 정점보다 6만 4천 개(약 0.5%)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Nvidia Unveils Faster Chip Aimed at Cementing AI Dominance Nvidia, 빠른 칩 공개... AI 지배력 강화

- 엔비디아가 칩 용량과 속도를 대폭 향상시킨 칩을 공개했다.
- 그래픽 칩과 프로세서가 결합된 Grace Hopper Superchip은 새로운 유형의 메모리로 성능이 향상될 것이다.
- 또한 이 제품은 초당 5테라바이트 속도로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3 또는 HBM3e를 사용한다.

- GH200으로 알려진 이 슈퍼칩은 2024년 2분기 때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엔비디아는 밝혔다. 이 칩은 컴퓨터 그래픽 엑스포 행사에서 발표되었다.

Bloomberg 기사

CNBC: Airlines can't add high-end seats fast enough as travelers treat themselves to first class

여행객들의 일등석 선호도↑

- 항공사들은 더 넓은 좌석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고비용 여행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 많은 여행객들이 장거리 항공편에서 이코노미를 이용하지 않는다. 대신 비즈니스 혹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선택하고 있다.
- 항공사 경영진들은 팬데믹 이후 고객들이 기내에서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항공 데이터 회사 Cirium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을 이동하는 이코노미 좌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의 81.9%에서 현재 79.3% 감소했다. 비즈니스 좌석은 12.9%에서 13.5%로,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4.2%에서 6.4%로 증가했다.

CNBC 기사

CNBC: U.S. Steel rejects a \$7.3 billion offer from rival Cleveland-Cliffs; considers alternatives

U.S. Steel, Cleveland-Cliffs 73억 불 인수 제안 거절

- U.S. Steel이 라이벌 Cleveland Cliffs의 73억불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고 일요일에 밝혔다. 또한 다른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이 회사는 Cleveland Cliffs이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조건을 수락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 한편 Cleveland Cliffs는 7월 28일 이 제안을 통해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4대 철강업체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을 위해 더 저렴하고 혁신적인 미국 공급업체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경제 연착륙 가능할까...외식·금융업 '긍정' vs 광고업 '비관'

침체 지표인 장단기 국채 수익률곡선은 여전히 '역전'

미국 경제가 고용시장 붕괴 등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극복하는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업종별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 상당히 엇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선 외식업계, 게임업계, 금융권 등은 전방적으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을 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